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07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12월 13일(음력 10월 23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 29

## 풀 한 포기라도 자기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 초심자가 알아야 할 마음 도리

**문** 아무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아직은 알듯 말듯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저 같은 초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도리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간 모습이면 누구나 다 인간이라고 보지만 탈판 인간인지 진짜 인간이 되지 못했을 때는 나중에 다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거나 부처님께서 "네 과거의 모든 걸 모르거든 지금 재 살아가는 것, 각본대로 한한테 다가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가는 걸 보면 미래에 올 것을 미리 알 수 있느냐, 그런데 누구더라 물어보느냐?" 그러셨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한 대로, 각본대로 나오는 것이요, 지금 하고 돌아가는 것은 미래의 각본이 되어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세밀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도 저렇게 사는 것도, 돈이 벌리는 것도 안 벌리는 것도 사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참말 어리석고 오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각자 사는 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대로, 또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이 자기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각본대로 배역이 주어지는 텔레린트처럼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인간이 되었는데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고(苦)'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법(四諦法)에서 말하듯이 '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집(集)'도 불고 '멸(滅)'도 불고 '도(道)'도 불고 이런 게 다 불어요. 크고 작은 게 불고 좋고 언짢은 게 불고, 언짢은 건 끊어 버리고 좋은 걸 불게 해도 역시 언짢은 게 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각본대로 받고 있고 또 부딪치고 있는 것도 인간 자체, 생명의 근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면 여러 가지 아주 기묘한 이치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주 얘기했지만 이 말은 꼭 하고, 또 한 번 하고 넘어가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사람의 육신 속에 미생물들이 수없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미생물들이 있기 이전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을 끌고 다닐 때 어떠한 아귀가 들어오려고 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저항력을 발휘해서 필사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들일 건 들입니다. 그건 왜냐. 자기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토록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고, 그렇게 침입 못하게끔 하는 그 마음들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을 이끌어 가는, 수심의 마리를 이끌어 가는 대표인이 그것을 업신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 위주로 아무렇게나 산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생각을 안 해 줍니다. 일을 하고는 있겠지요. 그러나 '에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구태여 우리가 뭐...' 이런 사람과 똑같죠. '구태여 뭐 그렇게 결사적으로 우리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뭐만 데서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을 옛날 수 있는 거요.

이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라는 게 극히 두렵다면 두렵고 무섭다면 무섭고 자비한다면 자비하고 너그럽다면 너그러운 겁니다. 한마음의 도리라는 것이 그렇게 너그러운가 하면 그것을 또 한 번 뒤집어 본다면 그 চে는 마음들이 악을 수없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을 수없이 이루어서 그저 인연이 조금이라도 닿으면 닿는 대로 끌어다가 우환을 일으키고 가환을 일으키고 병고를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체험을 해 본 사람은 그걸 알겠지만 체험을 해 보지 못하고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 팔자야. 왜 내가 이러냐." 하고선 한탄, 하소연만 하게 됩니다. 한탄하기 이전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원력이 필요한 거지 한탄하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탄을 하다 보면 암도 생기고 고히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병도 생기는 거요. 그러니까 게 누구 탓이나 이겁니다. 전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자기 업보요, 그걸 과거의 업보라고 하지만 과거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마음의 도리, 한마음을 진짜

어른이 되죠. 그렇듯이 내가 나를 낳고도, 터득을 했다,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건 발견한 게 아닙니다. 키워져야 발견했다는 뜻이 나오죠. 근본 자체, 그 참자기를 발견했을 때는 그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의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스승은 수억 겁을 거쳐 나와서 경향이 많아요.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려니까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요거 중요한 애입니다. 별짓 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새벽에 첫승을 할 때 일곱 번을 친다고 적혀 있다면 '넌 열두 번을 쳐라.'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또, 한 번을 쳐라 그러면 두 번 치게 하고

게 뭐냐' 하고서 거기다 또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자성불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얻어주기 위해서 거기다 도로 팽개쳐 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수없이 자기를 부딪치게 했고, 수없이 모습 없는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거기에 속지 않고 행복을 받았습시다. 자기라는 건 행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풀 한 포기라도 자기 스승 아닌 게 없느냐, 모두 내 스승이냐. 그것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공부할 어찌 했을까?" 하셨거든요. 또 부처님이 그렇게 그

적으로 모든 생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거를 할 때,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 내가 했다고 할까요. 또 아들 노릇을 내가 할 때에 '내가 아들 노릇을 했으니까 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렇게 자동적으로 많이 했어도 힘이 없이 했을 뿐이다 이거요. 우린 여기 들어올 때에 걸어서 들어오기는 틀림없이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발자취를 짚어지고 오신 분이 있으신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들이 하고도 한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짚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하나가 잘못됐으면 과거를 외려 붙잡고 간다 이겁니다.

어저께 한 일도 오늘 걱정을 해야 하고 그걸 붙들고 찢쩍 맴고요. 일초 전도 과거니까요. 일초 후도 미래니까요. 그림 현재만 있느냐. 현재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현재도 공했던 애기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공했으니까 모두 여러분이 할 뿐이지 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듣는 것도 하나만 듣고 마는 겁니까? 똑같은 걸 들습니까? 이걸 듣고 또 딴 것 들어야 하고 또 딴 거 봐야 하고 딴 거를 해야 하고 딴 사람 만나야 하고, 이걸 일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작용을 해야 하니까 이것은 얼른 쉽게 말해서 공용(公用)입니다. 공용!

공공인 까닭은 왜냐? 내 오장육부에도 생명체가 천차만별로 들어 있으니까요. 이 몸속에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 있어서 의식이 자기 마음을 건드린다는 것을 모르시냐? 이 모든 의식들이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주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의 한 모습이 한 세계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크다면 요만하게 좁쌀 알갱이만하게 하나 만들어서 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것이 수효를 해야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수효를 해야 될 수가 없이 많은데다가 그 수효를 해야 될 수가 없이 이름이 주어져 있죠. 우리네 세계, 이 지구 하나의 세계가 벌어져 있듯이. 위다 장이다 척수다 척수다 방광이다 장이다 하는 그 이름들이 수효가 없습니다. 다 따지자면 그 수효를 어떻게 일일이 해야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하나만 그 의식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공용이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아파서 관하면 의사가 돼 주고 또 집안이 안돼서 관하면 관세음 이 돼 주고, 이 소리는 뭐냐 하면 해결사가 돼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관하면, 자기 용도에 맞게 관하면 또 보디가드가 돼 주고요. 이것은 천차만별로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것대로 현실로서 그것이 행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이 천만의 말이지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냐는 의문이지요. 모든 주체는 자기네들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형성시켰고 자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주체는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주체는 뿌리와 같고 자기 모습은 싹과 같은 것이요. 그렇게 싹은 뿌리를 밟고 뿌리는 싹을 두고 이래야 푸르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불교라는 것이 이 이름으로만 '불교 불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단어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서 나라가 싸우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다 이 소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를 어느 혹성이, 즉 말하자면 부딪치게 됐다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이 불교란 너무도 심오하고 너무도 광대해서 무한한 겁니다.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 혹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혹성이 된다면 그것을 멀리 해서 부딪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죠.

이 불교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진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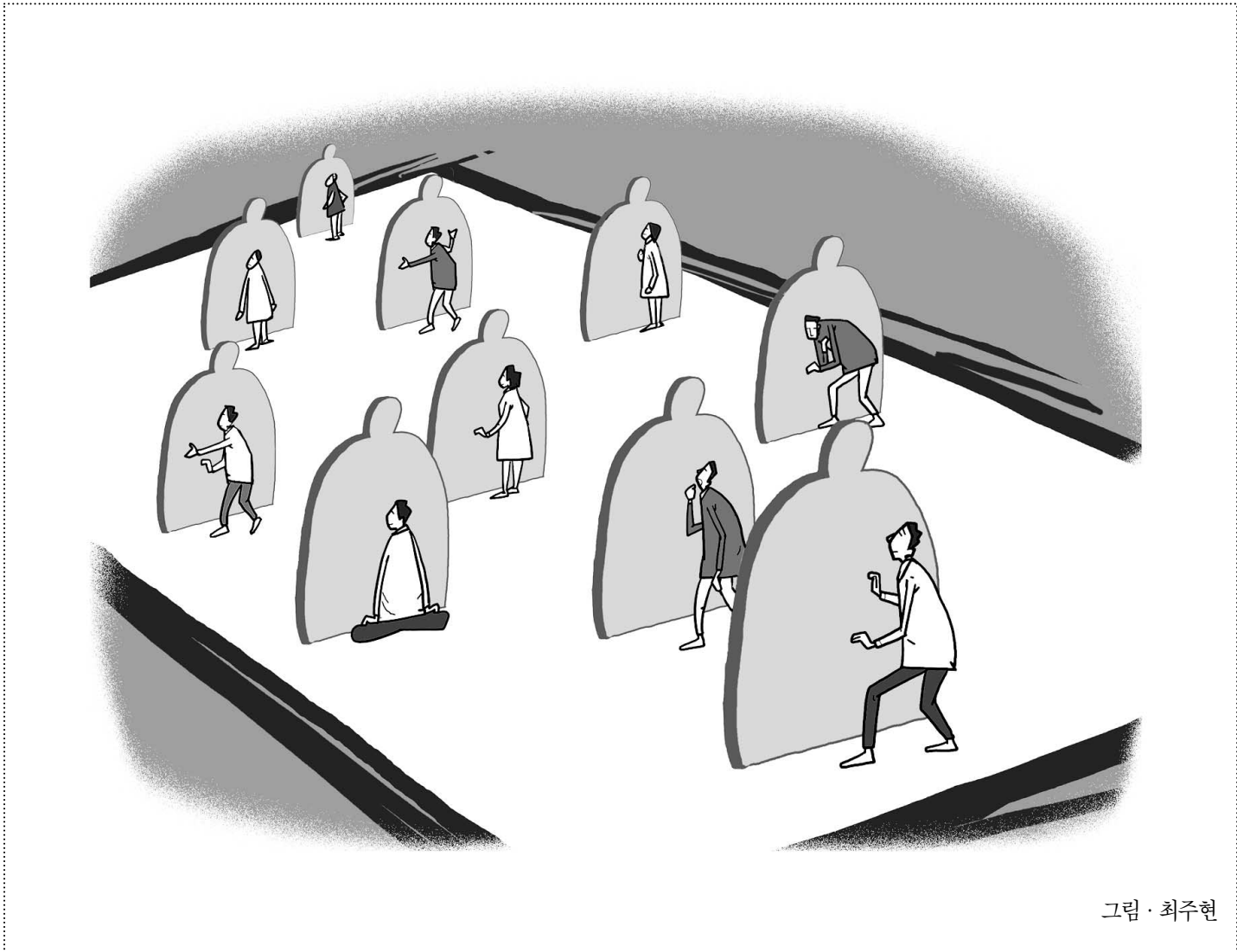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씩은 뿌리를 밟고 뿌리는 싹을 도와야 푸르게 살 수 있어

로 밟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인공' 하면 이름은 주인공이지만 뜻으로 벌써 삼천대천세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마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상, 부처, 중생 모두, 풀잎 하나, 애벌레 하나 버리지 않고 한마음으로 뭉쳐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는 이 평등 전리의 근본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진짜로 믿을 때에, 바로 주인공 속에 일체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아야 공(空)한 거를 알고, 공한 거를 알아야 찰나찰나 그냥 밟아 놓으면 밟 한 발 없애지고, 밟아 놓으면 밟 한 발 때에 놓은 자국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 내가 없는 그 공한 도리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마음의 나침반에 대해서

**문** 깨달음을 얻어야만 진정한 공부라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듯 어렵게 깨달음의 길에 드신 분들 중에는 일반인의 통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해서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의 과정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나침반을 얻어 가려면 어떻게 공부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내가 한 소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애를 낳아서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야

두 번 쳐라 하면 한 번 치게 하고, 이렇게 황개구리처럼 가르칩니다. 그럴 때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고 자기를 다지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혜를 내나, 그걸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거든요. 이 마음의 스승이 어떠한 물질보다 나오는 가 하면 꿈에도 보이고 꿈에 말을 해 주기도 하고, 꿈에 좋다 나쁘다 이유가 불기도 하고 또는 생시에도 나는 지금 저리로 가고 있는데 '저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스승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오관을 통해서 보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실에 내가 남한테 칭피를 당하는 일이거나 누(누)가 되는 일, 즉 선원에 누가 된다 기보다도 불가에 누가 되게 하고 부처님의 용호를 더럽히는 일, 그전에 나의 용호가 먼저 더러워 지겠지만, 그러한 일은 하지 말고 또 놓아야죠. 그러니까 "저 사람 미쳤어!" 이런 소릴 듣지 않고 공부하려면 이리로 가라 해도 '아, 날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한번 생각하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다가도 '너 지금 이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거야.'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을 거라는 것도 의미를 모르겠고 영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아, 이

것들을 보고서 깨쳤으니 그들은 부처님을 보고 또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나 어찌 들이겠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것이니 그렇게들 속지 말고 잘 공부해 나가 보십시오.

### 어떤 것이 진짜 불교인지?

**문** 어떤 것이 진실한 불교나 하는 것을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불교인지요?

**답** 그냥 우리 생활이 불교입니다. 무슨 어느 나라,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한 지구 안에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불교며 그대로 사는 것이 참선이며 그대로 사는 것이 여한 없습니다. 그런 걸 모르시니까, 여려한 걸 모르시니까 일후의 그 마음이라, '마음을 낸다'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지만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걸 썼다 저걸 썼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서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에 '애,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네.' 하고 자식의 노릇을 해 줘야 됩니다. 또 '아버지!' 하고 부르면 또 아버지의 노릇을 해 줘야 되겠지요. '어보!' 하고 부르면 남편 노릇을 해 줘야 하고요. 자동적으로 그런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자동